

# 韓國의 食糧資源의 輸出入現況 및 展望

黃 南 逸

## 차 례

- |                        |                      |
|------------------------|----------------------|
| I. 研究의 目的              | IV. 食糧資源의 輸出入推移      |
| II. 經濟成長과 農業部門         | 1. 세계의 食糧貿易事情        |
| III. 食糧資源의 需給現況 및 消費構造 | 2. 우리 나라의 食糧資源의 貿易現況 |
| 1. 食糧資源의 需給現況          | 3. 主要食糧資源의 輸出入構造     |
| 2. 主要食品의 消費構造          | V. 要約 및 結論           |
| 3. 食糧資源의 需給上의 問題       |                      |

## I. 研究의 目的

우리 나라의 食糧消費樣式은 經濟가 급속히 成長하고 所得水準이 向上되어 갈에 따라, 高級化 内지 多樣化되어 가고 있으며, 높은 比率의 人口增加로 食糧需要는 급격한 增加趨勢에 있다.

한편, 國內의 食糧供給能力은 耕地面積의 制約과 農業生產性의 低下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食糧需要에 미치지 못하여 食糧의 自給率은 1965 年의 94 %에서 1981 年에는 43 %까지 低下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食糧輸入은 지난 20 年間에 15 倍로 늘어났으며, 食糧資源의 輸入額은 1962 年의 1.4 億달러에서 1981 年의 65.5 億달러로 크게 增加하고 있다. 海外市場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食糧供給事情은 더욱 더 惡化되어 가리라고 생각되여지는데 그 이유는 첫째, 世界穀物生產基盤의 構造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世界最大穀物生產이 미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頻繁한 異常氣候로 인한 生產減少와 生產調整에 의하여 世界的의 穀物의 供給量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食糧을 石油와 같이 戰略資源화 하려는 경향이 表面化 되고 있고<sup>1)</sup>, 둘째, 巨大穀物매이저들의 生產者로 부터의 需要獨占과 消費者에게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助教授

1) 石川博文, 『穀物メジャー』, 岩波新書(172), 1982, pp.38~39. 및 ダン・モガン著, (NHK 食糧問題取材班 監訳／喜多辺鷹・喜多元子訳)『巨大穀物商社』, 日本放送出版協会, 1982, pp.381~420.

의 供給獨占이 문제가 되고 있다.<sup>2)</sup> 이들의 生產地에서의 食糧購入은 完全獨占形態를 취하고 있어 生產價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穀物生產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穀物消費市場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 形態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消費市場에서의 價格을 조작하여 食糧輸入國들의 不安을 노리는 投機에 의한 食糧獨占供給이 世界食糧需給事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세째, 低開發을 노리는 投機에 의한 食糧獨占供給이 世界食糧需給事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세째, 低開發國 내지 開發國들의 爆發的인 人口增加와 農業生產性의 減少로 食量의 不足現象이 深化되어, 아프리카와 一部 아시아地域의 大量은 人口가 食糧不足으로 죽어가고 있으며,<sup>3)</sup> 開發途上國 (Developing Countries)들의 食糧輸入需要는 1950 年代中半에서 1970 年代中半까지 약 6 倍나 增加했다. 開發國들의 輸入은 50 年代는 世界穀物輸入量의 20 %였던 것이 70 年代後半에는 40 %를 上回하게 되었고, 특히 밀은 世界輸入量의 70 %에 이르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도 70 年代에 들어와서 食糧自給率이 急激히 낮아짐에 따라 食糧輸入이 크게 增加한 結果, 막대한 外貨를 支拂해야만 하기 때문에 國際收支의 惡化要因이 되고 있으며, 國際收支의 惡化는 輸出戰略產業의 施設擴充을 위한 外貨使用을 相對的으로 制約하게 되어 經濟發展 내지 重化學工業化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食糧은 하나의 戰略資源으로써 그 重要性이 一層 높아가고 있고, 食糧의 安定的인 供給이 安定的이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可能하게 할 것이며, 食糧의 安定的인 供給은 穀穀의 自給度提高라고 하는 食糧政策의 基本目標達成의 한 方途로써 國家安保의 次元에 있어서도 主要한 課題로써 登場하고 있다.<sup>5)</sup>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커다란 戰略資源으로써의 食糧의 自給自足을 위한 均衡的인 食糧需給의 方向設定과 國際收支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食糧資源의 自給度提高를 위하여, 1962 - 81 年間의 우리나라의 農業部門의 成長, 食糧資源의 需給現況, 消費構造 및 需給上의 問題點, 食糧資源의 貿易現況 및 輸出入構造 등을 考察하는데 研究의 目的을 둔다.

2) 石川博文, 『穀物メジャー』, 岩波新書(172), 1982. pp.56 ~ 111에 의하면, 巨大穀物 메이저는 穀物帝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카길社(Cargill Inc.)를 비롯하여, 콘티넨탈·그레인社(Continental·Grain Inc.), 루이·드레이브스社(Louis·Drayfus Inc.), 블랑社(Bunge Inc.), 앤드레社(Andre Inc.) 등 五大메이저를 말한다.

3)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餓死하고 있는 人口는 約 5 억에 달하고 있고, 영양부족에 의한 死亡者 수는 年間 5 千人에 달하고 있다.

4) Howard Wagstaff, "Food im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FOOD POLICY」, February 1982, p.57.

5) 潘性紹, 『韓國農業의 成長』, 韓國開發研究院, 1974. p.17.

## II. 經濟成長과 營業部門

經濟開發計劃이 實施되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第一次産業에 偏重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工產品은 輸入에 依存하여야만 했으므로 工業化가 時急히 要請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2年부터 1981年까지 四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樹立 實施되었는데, 第一次開發計劃의 內容은 基礎産業建設과 製造工業의 育成에 의한 輸入代替의 产业構造를 形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鉴速한 工業化의 지향은 農業部門의 擴充의 成長없이는 達成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하여 提起되었던 것이다.<sup>6)</sup>

開途國의 工業化에 있어서 農業部門은 國民生活에 필로한 食糧의 生產供給, 製造業部門에서 필로 하는 原料의 供給, 工業製品에 대한 安定的인 需要創出 등의 세 가지 基礎的 技能을 充實히 履行할 수 없을 때는, 食糧不足現象이 일어나고, 製造業部門의 原材料의 海外依存度가 높아지며, 國內市場의 相對的인 委縮을 가져오게 되어 工業部門의 成長이 遲화되기 때문에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自立經濟의 達成을 위해서는 農業部門의 高成長을 통한 寄與率의 提高와 農產物의 生產擴大가 要求되어 지는 등 農業部門이 擔當해야 할 役割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7)</sup>

表 1 部門別 成長率 (%)

期 間	年平均 成長率		
	國民總生產	農業	非農業
1962 ~ 66	7.9	5.9	11.4
67 ~ 71	9.7	1.6	16.3
72 ~ 76	10.2	6.2	13.3
77 ~ 81	5.8	1.0	7.8
1962 ~ 81	8.4	3.7	12.2
62 ~ 71	8.8	3.8	13.9
72 ~ 81	8.0	3.6	10.6

資料：經濟企劃院，「韓國의 經濟指標」，1982.12.

6) 金文植, "國民經濟와 農業", 『韓國農業의 近代化過程』,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p.1.

7) 金文植, 前揭論文, p.2.

## 產業研究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을 基本目標로 하여 1962~81년의 四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實施結果, 年平均 8.4%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나, 農業部門의 成長은 3.7%에 그쳤으며, 非農業部門은 12.2%로 높은 수준이었다。(表1 參照)

表2에서 產業構造를 보면, 全產業中 農業部門인 一次產業의 構成比가 1962年的 36.6%에서 1981年的 17.9%로 급속히 낮아져서 全期間의 年平均 構成比가 28.1%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期間의 農業部門 就業者의 年平均 構成比는 49.0%를 차지하고 있어, 相對的으로 所得水準이 낮은 農村에 아직도 많은 人口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있다。(表3 參照)

表2 產業構造 (%)

期 間	GNP (100만달러)	部 門 別 構 成 比			
		全 產 業	一 次 產 業	二 次 產 業	三 次 產 業
1962	2,315	100.0	36.6	16.2	47.1
65	3,006	100.0	37.6	19.9	42.5
70	7,834	100.0	26.8	22.3	51.0
75	20,233	100.0	24.9	28.0	47.1
80	56,460	100.0	16.3	30.2	53.5
81	62,232	100.0	17.9	31.1	52.0
1962~81		100.0	28.1	23.9	48.0
62~71		100.0	33.8	19.8	46.4
72~81		100.0	22.4	28.0	49.6

資料：經濟企劃院，「韓國의 經濟指標」，1982.12.

表3 產業別 就業構成比 (%)

期 間	就業者 (1000人)	部 門 別 就業構成比			
		全 產 業	一 次 產 業	二 次 產 業	三 次 產 業
1963	7,662	100.0	63.1	8.7	28.2
65	8,206	100.0	58.6	10.3	31.0
70	9,745	100.0	51.3	14.3	35.2
75	11,830	100.0	45.9	19.1	35.0
80	13,706	100.0	34.0	22.6	43.4
81	14,048	100.0	34.2	21.3	44.5
1962~81		100.0	49.0	16.2	34.8
62~71		100.0	55.7	12.1	32.2
72~81		100.0	42.4	20.2	37.4

資料：表2와 같음。

生産과 就用面에서 農業의 相對的인 地位가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經濟發展에 따른 世界共通의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農業生産構成比가 就業構成比에 비하여 낮은 것은 經濟開發戰略이 輸出主導型成長政策이 었지만 自然資源이 부족하므로 海外로 부터 값싼 食糧 및 原料資源을 導入하여, 國內의 豐富한 人的資源을 活用·加工輸出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農業部門의 開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즉, 1962年에 經濟開發計劃을樹立할 당시의 政策立案者들은 平和를 위한 食糧援助의 一環으로써 마련된 PL 480에 크게 기대를 걸고, 미국의 剩餘農產物의 市場提供의 기능과 함께 國內의 으로는 工業化에 必要한 값싼 食糧 및 原料의 確保와 長期低利의 借款에 의한 販賣代錢의 確保라고 하는 二重效果를 기대하였던 것이다.<sup>8)</sup>

이와같은 政策實施의 결과로 食糧의 國內生產은 停滯하는 한편, 食糧需要는 國民所得의 向上과 人口增加에 의하여 相對的으로 增加하였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食糧의 海外依存度는 繼續的으로 높아졌던 것이다.<sup>9)</sup>

### III. 食糧資源의 需給現況 및 消費構造

#### 1. 食糧資源의 需給現況

1962年부터 1981年까지의 供給面에 있어서의 穀物生產은 約 6%포인트 減少했는데, 需要를 위한 導入量은 15倍 이상이나 增加했다. 表 4로부터 生產內容을 보면, 쌀은 1962年的 3,643 천t에서 1980年에는 5,136 천t으로 늘어났지만, 1981年에는 3,550 천t으로 줄어들어 前年比 30.9%나 減產되었다. 1981年的 보리生産은 1962年的 22.8%까지 줄어들었고, 밀, 옥수수, 대두 등의 生產도 점차로 鈍化되어 1981年的 全體穀物生產量은 1980年에 비하여 24.7%나 減少되었다.

그와같이, 全體 穀物生產量이 지난 1977年以後 停滯해 있거나 減少되고 있는 現象은, 第四次 經濟開發計劃期間인 1977-81年에 農產物의 輸入開放政策이 實施된 결과, 모든 穀物의 生產量이 減少하고 있는데 起因하고 있다고 하겠다.<sup>9)</sup>

8) 金民彩編, 『韓國經濟의 分析』, 1982, pp. 69~70.

9) 金民彩編, 前揭書, p.71.

## 產 業 研 究

表 4 主要穀物의 生產量推移 (單位: 천t)

年度 \ 區分	쌀	보리	밀	옥수수	大豆	其 他	計
1962	3,643	1,113	164	16	165	125	5,226
66	3,510	1,632	193	40	174	130	5,670
70	4,090	1,591	219	63	229	126	6,318
75	4,445	1,700	97	58	319	97	6,716
77	5,215	814	45	84	295	98	6,551
79	5,797	1,508	42	100	293	92	7,832
80	5,136	811	92	149	257	88	6,533
81	3,550	859	57	154	216	82	4,918

資料：農水產部，「全體糧穀需給實績」，1962～81。

특히, 1981년의 穀物生產이 急速히 減少한 것은 近來에 볼 수 없었던 糜의 大凶作에 의하여 前年比 69 %밖에 生產할 수 없었던 것이 主因이었다. 表 5의 導入穀物의 内容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長期的으로 볼 때, 옥수수의 急速한 增加이다. 飼料用 옥수수의 導入增加가 지난 20 年間에 65倍에 이르고 있는 것은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함께 畜產物에 대한 國民의 需要가 그 만큼 增加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表 5 主要穀物의 導入量推移 (單位: 천t)

年度 \ 區分	쌀	보리	밀	옥수수	大豆	其 他	計
1962	-	30	398	36	16	2	482
66	32	-	460	33	-	-	525
70	541	-	1,254	284	36	-	2,115
75	481	354	1,584	532	61	-	3,012
77	-	322	1,979	1,370	151	-	3,822
79	501	-	1,652	2,881	422	13	5,469
80	580	-	1,810	2,234	417	10	5,051
81	2,245	-	2,095	2,355	529	9	7,233

資料：表 4 와 같음。

### 韓國의 食糧資源의 輸出入現況 및 展望

7

그 외에도 같은 期間에 밀의 導入量이 크게 증가하여 5.3倍에 이르고 있고, 大豆의 導入量도 급격히 增加하여 33倍에 이르고 있다.

短期的으로는, 粮 導入量의 增加에 基因하는 1981年の 全體導入量이 1980年に 비하여 4.3%정도 늘어 난 것을 들 수 있겠다. 이상의 供給側面을 全體的으로 보면, 1962年に 비교하여 1981年の 絶對供給量이 5,708천t에서 12,151천t으로 約 2.1倍로 늘어났지만, 많은 量이 導入穀物의 擴大에 依해서 充足되어졌다. 한편, 需要側面에서 보는 主要穀物의 需要量變化를 表 6에서 보면 粮이 1962年の 3,407천t으로 부터 81年の 5,366천t으로 57.5%가 늘어났고,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이 각각 593천t에서 2,098천t으로 約 3.5倍, 52천t에서 2,533천t으로 48.7倍, 185천t에서 725천t으로 3.9倍의 增加를 나타내어 全體穀物의 需要量은 5,593천t으로 부터 11,998천t으로 增加하여 約 2.1倍의 增加를 가져왔다.

1977年 이후 5年間의 年平均導入量은 5,036천t으로 全體需要量의 約 2분지 1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미국으로 부터의 導入에 依存하고 있다.

表 6 主要穀物의 需要量推移 (單位: 천t)

區分 年度	쌀	보리	밀	옥수수	大豆	其 他	計
1962	3,407	1,235	593	52	185	121	5,593
66	3,532	1,488	651	73	174	126	6,044
70	4,394	1,497	1,421	333	266	135	8,046
75	4,699	1,848	1,704	697	372	97	9,417
77	5,045	1,523	1,981	1,353	437	98	10,437
79	6,764	1,286	1,741	2,914	675	103	13,483
80	5,402	1,407	1,924	2,517	733	98	12,081
81	5,366	1,182	2,098	2,533	727	92	11,998

資料 : 表 4와 같음.

## 2. 主要食品의 消費構造

1962年 以後의 食品消費量推移를 表 7에서 보면, 穀物의 1人當 年間消費量은 1962年の 174.8kg에서 1970年까지는 219.4kg으로 크게 增加했지만, 70年代에 들어와서는 점차 減少趨勢에 있는 반면, 所得의 向上에 의하여 所得彈性值가 큰 畜產物과 水產物의 消費量은 현저하게 增加하였다.

穀類에 있어서는, 쌀이 1965年의 121.8 kg에서 1970年에 136.4 kg으로, 보리는 같은期間에 36.8 kg에서 37.3 kg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그러나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1981年에는 쌀消費가 131.5 kg, 보리消費가 16.2 kg로, 1970年에 비하여 쌀은 4.9 kg가 줄었는데, 보리는 21.1 kg나 크게 감소했다. 이와같이 보리消費量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보리에 대한消費者的選好度가 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sup>10)</sup>

表7 一人當 年間食品消費量推移 (單位: kg)

品目別	1962	1965	1970	1980	1981
穀類	174.8	188.8	219.4	195.1	196.0
쌀	113.9	121.8	136.4	132.4	131.5
보리	35.7	36.8	37.3	13.8	16.2
밀	12.7	13.8	26.1	29.4	30.9
大豆	4.9	4.4	5.3	8.0	8.2
薯類	3.2	7.3	10.2	6.3	4.3
옥수수	0.6	0.9	1.1	3.1	2.9
雜穀	3.8	3.8	3.0	2.1	2.0
野菜類	-	46.7	59.9	120.6	124.0
果實類	-	9.8	10.0	16.2	19.5
肉類	3.5	4.6	6.6	11.3	11.8
牛肉	0.5	1.4	1.6	2.6	2.4
豚肉	2.3	2.7	3.6	6.3	5.4
鷄肉	0.7	0.5	1.4	2.4	2.3
牛乳	-	2.1	1.8	10.8	14.4
鷄卵	1.8	1.9	3.2	5.9	5.5
水產物	-	18.0	17.3	27.0	33.3

資料：農水產部，「糧穀需給資料」，1962～81。

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1年 食品需給表」，1982。

10) 1980年度의 보리의 가마당 平均放出価格은 17,595 원으로, 쌀의 放出価格 44,000 원과 비교하면, 60 %나 싼데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밀의 消費量은 1965年의  $13.8\text{ kg}$ 에서 1970年에는  $26.1\text{ kg}$ 으로, 1981年에는  $30.9\text{ kg}$ 으로 지속적으로 增加하고 있다. 1962年에는 밀의 消費量이 보리 消費量의 30% 정도였던 것이 1975年 이후부터 逆轉되기 시작하여 1981年에는 밀의 消費量이 보리의 1.9倍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같이, 國內生產의 餘力이 있는 보리의 消費量이 急速히 감소하고 있는 反面, 거의 전량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밀의 消費量이 繼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은, 食糧自給度 提高面에서 볼 때 커다란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두와 옥수수는 70年代 초반까지는 크게 變化하지 않았지만, 70年代 후반부터 그 消費量이 크게 增加하기 시작했으며, 薯類는 1970年까지는 漸增했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雜穀의 消費量은 1965年 이후 繼續하여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穀物을 全體的으로 볼때, 쌀, 보리, 雜穀의 消費量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反面, 밀 옥수수 등이 크게 增加하고 있다.

野菜類의 消費는 1965年의  $46.7\text{ kg}$ 에서 1981年에는  $124.0\text{ kg}$ 으로 크게 늘어 났으며, 果實類의 消費量도 같은 기간에  $9.8\text{ kg}$ 에서  $19.5\text{ kg}$ 으로 增加했다.

肉類의 消費量은 1965年의  $4.6\text{ kg}$ 에서 1981年에는  $11.8\text{ kg}$ 으로 約 2.6倍 增加하였는데, 이는 1970年의  $6.6\text{ kg}$ 에 비교하더라도 1.8倍의 增加를 가져왔다.

牛乳는 1965年의  $2.1\text{ kg}$ 에서 1981年에  $14.4\text{ kg}$ 으로 約 7倍로 늘어 났으며, 鷄卵의 消費도 같은 期間에  $1.9\text{ kg}$ 에서  $5.5\text{ kg}$ 으로 크게 늘어났고, 水產物도  $18.0\text{ kg}$ 에서  $33.3\text{ kg}$ 으로 현저히 增加하여, 1970年 이후의 所得水準의 向上과 함께 식생활이 크게 變化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以上과 같이, 肉類, 牛乳, 鷄卵 등의 需要가 增大됨에 따라 사료用穀物의 需要가 急激히 增加하여, 이것이 食糧自給度低下와 수입에 따른 外貨支拂增加의 原因이 되고 있다.

즉, 사료용의 穀物需要가 1965年에 365千t이었던 것이 1980年에는 2,472千t으로 增加하여 約 6.8倍에 이르게 되었다.<sup>11)</sup>

또, 主要穀物인 쌀과 보리의 消費量이 크게 줄어든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의 消費量의 增加하고 있어, 이것이 穀物의 감소분은 代替하고 있다고 하겠다.

表8에서 全體穀物의 消費構造를 보면, 쌀이 차지하는 比重이 1962年의 65.2%에서 1970年에는 62.2%를 나타내어 그 비중이 낮아졌지만, 1981年에는 67.1%로 높아져서 1970年이후의 쌀의 消費偏重現象이 잘 나타나 있다.

1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長期食糧需給에 관한 研究』, 1982, p.7.

表 8 1人當 年間食用穀物消費量의 構成比 變化 ( 單位: kg )

穀種別	1962		1970		1980		1981	
	消費量	構成比	消費量	構成比	消費量	構成比	消費量	構成比
쌀	113.9	65.2%	136.4	62.2%	132.4	67.8%	131.5	67.1%
보리	35.7	20.4	37.3	17.0	13.8	7.1	16.2	8.3
밀	12.7	7.3	26.1	11.9	29.4	15.1	30.9	15.7
옥수수	0.6	0.3	1.1	0.5	3.1	1.6	2.9	1.5
大豆	4.9	2.8	5.3	2.4	8.0	4.1	8.2	4.2
薯類	3.2	1.8	10.2	4.6	6.3	3.2	4.3	2.2
雜穀	3.8	2.2	3.0	1.4	2.1	1.1	2.0	1.0
計	174.8	100.0	219.4	100.0	195.1	100.0	196.0	100.0

資料：農水產部，「食品需給表」，1962～81。

한편, 보리의 비중은 각각 20.4%, 17.0%, 8.3%로 크게 감소했으나, 거의 수입에 依存하고 있는 밀의 構成比가 같은 期間에 7.3%로 부터 11.9%, 15.7%로 현저하게 높아졌고 70%정도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두의 比率도 1962年의 2.8%에서 1981年에는 4.2%로 증가추세에 있다.

### 3. 食量資源의 需給上의 問題

人口增加와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食糧需要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反面, 食糧生產은 耕地面積의 制約<sup>12)</sup>과 氣象異變등에 의하여 停滯하고 있기 때문에 食糧自給率이 점차로 떨어지고 있다. 表9에서 全體穀物의 自給率을 보면, 1962年的 90.8%에서 1965年に 93.9%까지 上昇했지만, 1975年에는 73.0%, 1981年에는 43.2%까지 下落하여, 1981年的 自給率은 1965年に 비하여 50.7%포인트나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食糧事情은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穀物의 種類別自給率은, 쌀이 1965年的 100.7%에서 1980年에는 95.1%로 낮아져서 그 下落幅이 적었지만, 1981年에는 쌀의 소비편중현상과 旱害와 冷害 등에 의한 대흉작으로 66.2

12) 建設部가 1983年11月17日(朝鮮日報) 국회에 제출한 資料에 의하면, 1981-83年的 3年間に 每年 170萬坪 이상의 農地가 宅地化되고 있다고 한다.

%까지 下落하여 最惡의 狀態가 되었다.

보리는 低穀價政策에 의한 경작기피에 의하여 경작면적이 줄어듬에 따라 自給率도 1965年的 106.0 %에서 1980年的 57.6 %까지 下落했지만, 1981年에는 쌀의 흉작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난 결과로 72.7 %까지 상승하여 代替的穀物로써 潛在力を 지니고 있다.

밀, 옥수수, 대두 등은, 1965年에는 각각 27.0 %, 36.1 %, 100.0 %였지만, 1981年에 이르러서는 2.7 %, 6.1 %, 29.7 %로 크게 저하되었다. 薯類의 自給率은 100 %를 유지하고 있고 其他穀物의 自給率은 지난 20년간 11 %정도 낮아졌다.

表 9 穀物의 自給率推移(單位: %)

穀種別	1962	1965	1970	1975	1980	1981
全體穀物	90.8	93.9	80.5	73.0	56.0	43.2
쌀	101.6	100.7	93.1	94.6	95.1	66.2
보리	90.1	106.0	106.3	92.0	57.6	72.7
밀	27.7	27.0	15.4	5.7	4.8	2.7
옥수수	30.8	36.1	18.9	8.3	5.9	6.1
大豆	91.2	100.0	86.1	85.8	35.1	29.7
薯類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其他	100.0	100.0	96.9	100.0	89.8	89.1

資料：農水產部, 「食糧需給表」, 1962~81.

表 10에서 국민의 營養供給實態를 보면, 국민 1인당 热量供給量은, 1962年的 1,943 Kcal에서 1970年에는 2,370Kcal로 增加했고, 1981年에는 2,531Kcal로 늘어났다. 蛋白質의 供給量은 같은 期間에 53.2g, 65.1g, 76.9g으로 점차 增加하고 있고, 脂肪質의 供給量도 1962年的 13.1g에서 1981年에는 39.2g으로 크게 增加하였다.

全期間을 통하여 식물성에 의한 열량공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淀粉質에 의한 열량공급은 1962年的 92.5 %에서 1981年的 76.3 %까지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其他植物性에 의한 供給量은 3.5 %에서 15.4 %로 크게 增加하고 있다. 동물성의 공급량도 같은 期間에 4.1 %에서 9.8 %로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期間의 단백질의 供給量은, 식물성단백질이 85.9 %에서 71.8 %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14.1 %에서 28.2 %로 두배나 늘어났다.

열량 및 단백질의 供給量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식물성의 供給量이 증어든 반면, 동물성의 供給量이 1962-81年의 20年間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表 10 1人當 榮養供給量推移

區 分	1962	1965	1970	1975	1980	1981
熱量 (kcal)	1,943	2,189	2,370	2,390	2,485	2,531
植物性	1,863	2,087	2,249	2,212	2,257	2,284
<澱粉質>	1,797 (92.5)	2,011 (91.9)	2,082 (87.8)	2,023 (84.6)	1,898 (76.4)	1,932 (76.3)
<其他> <sup>1)</sup>	66 (3.5)	76 (3.6)	167 (7.9)	189 (8.5)	359 (15.9)	352 (15.4)
動物性	80 (4.1)	102 (4.7)	127 (5.1)	178 (7.4)	227 (9.2)	248 (9.8)
蛋白質 (g)	53.2	57.7	65.1	71.1	73.6	76.9
植物性	45.7 (85.9)	48.5 (84.1)	54.5 (83.7)	55.9 (78.6)	53.5 (72.7)	55.2 (71.8)
動物性	7.5 (14.1)	9.2 (15.9)	10.6 (16.3)	15.2 (21.4)	20.1 (27.3)	21.7 (28.2)
脂肪質 (g)	13.1	15.2	19.7	27.4	36.6	39.2

資料：農水產部，「食品需給表」，1962～81。

註：1) 野菜類, 果實類, 糖類 등을 包含함。

2) ( ) 속은 構成比를 나타냄。

1981年의 1人當 供給量만을 보면, 全體 열량공급량 2,531Kcal, 總蛋白質供給量 76.9g 은 適正水準에 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단백질중 동물성단백질은 21.7g 으로, 총단백질 공급량의 28.2%를 차지하고 있어 適正水準이라고 할 수 있는 33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13)</sup> 脂肪質의 供給量은 지난 20年間에 3倍나 增加했지만, 이중 魚貝類, 豆類, 穀類 등의 構成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油脂類와 肉類의 비중이 增加하여 脂肪質의 重要한 供給員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질의 供給量이 不足하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4)</sup>

따라서, 均衡的인 榮養供給을 위해서는 동물성식품의 供給을 增大시켜 穀物의 비중을 상대적 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동물성식품의 增加는 사료용穀物의 수입증가를 前

1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上揭書, p.12 를 보면, 學者에 따라 30 %부터 40 %까지를 適正水準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1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前揭書, p.15.

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政策的配慮가 要求되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食糧需給上의 問題點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食糧自給率下落에 의한 수입증가, 또 하나는 榮養供給의 不均衡이다.<sup>15)</sup>

食糧自給率이, 1965年の 94 %에서 1980年에 54 %, 1981年に 43 %로 급격히 低下한 것은, 1965年부터 穀物生産이 평년작을 維持한 1980年에 이르기 까지 穀物에 대한 수요가 72.2 % 增加한데 비하여, 穀物生産은 2.7 %에 머물고 있는데에 기인하고 있음을 表11을 통하여 알 수 있다.

表11 穀種別 需給推移 (單位: 천t)

穀種別	需 要			生 產		
	1965(A)	1980(B)	B/A(%)	1965(C)	1980(D)	C/D(%)
쌀	3,925	5,402	137.6	3,954	5,136	129.9
보리	1,377	1,407	102.2	1,459	811	55.6
밀	682	1,924	282.1	184	92	50.0
옥수수	97	2,517	2,594.8	35	149	425.7
大豆	163	733	449.7	163	257	157.7
薯類	936	515	55.0	936	515	55.0
雜穀	133	98	73.7	133	88	66.2
計	7,313	12,596	172.2	6,864	7,048	102.7

資料：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65~80.

穀物의 需要量이 이와같이 현저하게 增加한 것은, 축산물에 대한 需要增加로 사료곡물인 옥수수의 消費量이 15年間에 26倍나 增加했고, 대두의 需要가 4.5倍, 밀이 2.8倍 增加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穀物生産은 2.7 %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이 期間中에 옥수수가 4.3倍, 대두가 1.6倍, 쌀이 1.3倍의 增加를 가져왔지만, 보리, 밀, 薯類 등의 生產量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었다.

榮養供給不均衡의 問題로써는, 동물성식품의 摄取가 比較的 적고, 쌀을 중심으로 하는 植物性食品에 依存하고 있으며, 肉類中에서는 쇠고기의 消費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sup>16)</sup>

15) 이점에 대해서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前掲書, pp.14~19를 參照할것.

1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前掲書, pp.14~16.

熱量供給量中에서, 三大栄養素의 構成比를 1980年度의 식품수급표로 부터 계산해 높은 것을 보며는, 糖質이 74.9%, 蛋白質이 11.8%, 脂肪이 13.3%로, 理想的인 열량구성비로서 알려져 있는 糖質 63~69%, 蛋白質 11~12%, 脂肪 20~25%와 比較하면, 糖質의 構成比 74.9%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脂肪의 構成比는 13.3%로 상당히 적은 편이며 蛋白質의 構成比는 11.8%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1人當年間 쇠고기의 消費量은 1980年에 2.6kg에 불과했지만, 이는 主要肉類消費量의 23%에 이르고 있어, 日本의 16.8%, 대만(1977)의 3.1%보다 훨씬 높은 水準이다.<sup>18)</sup>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쇠고기의 소비편중은, 최근에 이르러 莫大한 쇠고기의 수입을 不可避하게 했고, 다른 肉類의 消費量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最近 數年間에 大地값의 暴落現象을 가져와 축산파동이라고 하는 社會問題를 일으키기도 했다.

#### IV. 食糧資源의 輸出入推移

##### 1. 世界의 食糧貿易事情

세계의 食糧貿易事情은, 미국의 全體穀物輸出量이 全世界輸出量의 55.9%를 차지하고 있어 世界穀物市場에서 壓倒的인 위치에 君臨하고 있으며, 穀物輸入國은 소련,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아시아지역의 穀物生產 여하에 따라 크게 左右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의 穀物貿易量은, 生產量에 비하여 貿易量은 적어서, 地域의인 色彩가 짙은 例外하면, 밀과 飼料穀物의 合計로써는 年間 約 2億t을 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미국의 輸出量은 1980/81年度에 1億1,430t으로, 全體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美國과 輸出市場에서 競合하고 있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 主要穀物輸出國의 밀과 飼料穀物의 輸出量은 5,350만t으로, 世界輸出量 合計의 26.9%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美國이 世界穀物市場에서 壓倒的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위의 穀物貿易量의 內譯은, 밀이 9,350만t이고, 나머지 1億510만t이 飼料穀物인데, 美國

1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上掲書, p.14.

1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上掲書, p.16의 <表2-10>에 의하면, 일본의 주요 肉類消費量은 20.8kg으로 한국의 約2倍에 이르고 있으나 牛肉消費量은 3.5kg으로 全體肉類消費量의 16.8%이고, 대만은 35.3kg으로 한국의 3倍를 넘고 있지만, 牛肉消費量은 1.1kg으로 한국의 42%에 지나지 않을뿐 만 아니라 全體肉類消費量의 3.1%의 낮은 水準이다.

19) 日本外務省 経済局 資源第2課 『国際食糧問題とわが国の対外食糧政策』, 1982, p.7.

의 밀 輸出量은 4,190 만t으로 全世界輸出量의 44.8 %에 지나지 않아 相對的으로 적지만, 飼料穀物 輸出量은 7,240 만t으로 世界全體의 70에 가까운 占有率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다른 穀物과 比較하여 國際的인 商品이라고 할 수 없지만, 世界貿易量 1,200~1,300 만t 중 300 만t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泰國과 1.2位를 다투는 主要輸出國이 되어있다.<sup>20)</sup>

世界穀物貿易은, 70年代로 접어 들면서 커다란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1972年の凶作

表 12 國別 世界穀物生産量

(國別 穀物生産의 世界對比) (單位: 100 만t)

年 度	美國	소련	中國(注)	西歐	東歐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其他	合 計※
1980-81	268	179	233	160	96	41	29	17	410	1,430
%	18.7	12.5	16.3	11.2	6.7	2.8	2.0	1.2	28.7	
1979-80	301	171	243	150	91	36	19	23	382	1,416
%	21.3	12.1	17.2	10.6	6.4	2.5	1.3	1.6	26.9	
1978-79	275	226	226	154	96	41	25	25	390	1,459
%	18.8	15.5	15.5	10.6	6.6	2.8	1.7	1.7	26.7	
1977-78	274	185	199	136	94	42	24	14	366	1,334
%	20.5	13.9	14.9	10.2	7.0	3.1	1.8	1.0	27.4	
1976-77	256	212	206	125	94	45	28	17	379	1,362
%	18.8	15.6	15.1	9.2	6.9	3.3	2.1	1.2	27.8	
1975-76	247	132	196	131	88	37	21	18	369	1,239
%	19.9	10.7	15.8	10.6	7.1	3.0	1.7	1.5	29.8	
1974-75	203	184	191	143	91	31	20	16	335	1,213
%	16.7	15.2	15.7	11.8	7.5	2.6	1.6	1.3	27.6	
1973-74	236	211	173	136	87	37	25	17	345	1,266
%	18.6	16.7	13.7	10.7	6.9	3.0	2.0	1.3	27.3	
1972-73	227	159	...	134	87	35	23	10	...	1,161
%	19.6	13.7	...	11.5	7.5	3.0	2.0	0.9	...	
1971-72	236	171	...	134	82	37	15	15	...	1,194
%	19.8	14.3	...	11.2	6.9	3.1	1.3	1.3	...	
1970-71	186	158	...	116	67	27	20	13	...	1,104
%	16.8	14.3	...	10.5	6.1	2.4	1.8	1.2	...	

資料：米國農務省

(注) 中國의 1973/74年以前의 總計는 不明임.

※ 合計는 밀·飼料穀物·精米를 包含한 것임.

出處：『國際食糧問題とわが國の對外食糧政策』，1982年10月，日本外務省。

20) 日本外務省, 前掲書, p.7.

表 13 國別 世界穀物輸出量

(國別 穀物輸出의 世界對比)

(單位: 100 만t)

年 度	美 國	캐나다	오스트레 일 리아	아르헨티나	西 歐	其 他	合 計※
1980-81	117.7	20.4	13.8	13.3	23.6	21.8	210.6
%	55.9	9.7	6.6	6.3	11.2	10.4	
1979-80	111.8	19.8	19.3	11.3	17.1	19.8	199.1
%	56.2	9.9	9.7	5.7	8.6	9.9	
1978-79	91.5	17.4	9.7	14.8	16.2	24.4	174.0
%	52.6	10.0	5.6	8.5	9.3	14.0	
1977-78	85.9	19.6	13.4	13.6	12.7	21.3	166.5
%	51.6	11.8	8.0	8.2	7.6	12.8	
1976-77	78.8	17.5	12.1	15.1	11.1	21.4	156.0
%	50.5	11.2	7.8	9.7	7.1	13.7	
1975-76	79.5	17.0	11.3	8.5	14.9	21.0	152.2
%	52.2	11.2	7.4	5.6	9.8	13.8	
1974-75	64.6	14.0	11.7	10.7	13.2	21.6	135.8
%	47.6	10.3	8.6	7.9	9.7	15.9	
1973-74	77.2	14.4	7.4	9.5	11.8	22.1	142.4
%	54.2	10.1	5.2	6.7	8.3	15.5	
1972-73	69.2	19.8	7.4	7.6	12.1	18.2	134.3
%	51.5	14.7	5.5	5.7	9.0	13.6	
1971-72	39.5	18.3	12.1	7.5	9.9	22.4	109.7
%	36.0	16.7	11.0	6.8	9.0	20.4	
1970-71	40.8	15.7	11.9	9.2	8.3	23.8	109.7
%	37.2	14.3	10.8	8.4	7.6	21.7	

資料：美國農務省

※ 合計는 밀·飼料穀物·精米를 包含한 것임.

出處：表 12 와 같음。

에 의하여 소련이 自由市場에서 穀物을 大量輸入하면서 부터, 소련은 恒常的인 穀物의 大量輸入국이 되고, 中國도 70年代를 통하여 年年의 豐·凶作에 의해 穀物의 輸入量은 增減을 반복하

表 14 國別 世界穀物輸入量

(國別 穀物輸入의 世界對比)

(單位: 100 만t)

年 度	소 련	中 國	日 本	西 歐	東 歐	其 他	合 計※
1980-81	35.0	15.0	24.8	30.0	16.2	89.6	210.6
%	16.6	7.1	11.7	14.2	7.7	42.5	
1979-80	30.5	10.9	24.5	31.7	17.3	84.2	199.1
%	15.3	5.5	12.3	15.9	8.7	42.3	
1978-79	15.1	11.1	23.6	32.0	14.9	77.3	174.0
%	8.7	6.3	13.6	18.4	8.6	44.4	
1977-78	18.4	8.7	22.8	33.4	13.6	69.6	166.5
%	11.1	5.2	13.7	20.1	8.2	41.8	
1976-77	10.3	3.2	21.4	42.4	15.2	63.5	156.0
%	6.6	2.1	13.7	27.2	9.7	40.7	
1975-76	25.6	2.2	19.4	32.2	13.5	59.3	152.2
%	16.8	1.4	12.7	21.2	8.9	40.0	
1974-75	6.0	6.2	18.5	33.7	10.5	60.9	135.8
%	4.4	4.6	13.6	24.8	7.7	44.8	
1973-74	11.0	8.1	19.5	34.2	9.1	60.5	142.4
%	7.7	5.7	13.7	24.0	6.4	42.5	
1972-73	20.9	6.1	17.6	31.1	9.7	48.9	134.3
%	15.6	4.5	13.1	23.2	7.2	36.4	
1971-72	7.7	3.4	15.3	29.4	10.1	43.8	109.7
%	7.0	3.1	13.9	26.8	9.2	39.9	
1970-71	0.8	3.7	15.3	36.3	10.3	43.3	109.7
%	0.7	3.4	13.9	33.4	9.4	39.5	

資料：美國農務省

※ 合計는 밀·飼料穀物·精米를 包含한 것임。

出處：表 12 와 같음。

였지만, 점차로 增加하여 70年代末에는 大量輸入國으로 定着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美國은 穀物輸出量을, 絶對量에 있어서, 비 약적으로 伸張시킴과 동시에 世界의 輸出合計에 대한 占

有率도 크게 높이게 되었다.

한편, 1970年代 초반부터 大量輸入國으로서 정착해 있었던 日本은, 全體穀物輸入量이 所得水準上昇에 따른 農産物需要의 增加에 의하여 每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世界全體의 輸入量에 대한 構成比는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日本과 함께 先進國大量消費地域인 西歐의 경우는, 輸入量 그 自體가 減少傾向에 있고, 占有率도 점차 낮아져서 70年代末에는 70年代初에 비하여 半減되었다. 西歐는 輸出國이기도 해서, 輸出量은 오히려 점차로 늘어나, 純輸入量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sup>21)</sup>

쌀의 重要한 輸出國은 美國과 泰國이고, 파키스탄도 1978年부터 100만t 이상을 輸出하고 있고, 主要輸入國으로서는, 1979年까지는 인도네시아와 EC10個國이었으나, 1980年부터는 韓國이 가장 많은 200만t 이상의 쌀을 輸入하게 되었다.

위에서 言及한 1972年의 大凶作은, 世界的인 食糧의 부족現象을 일으켜, 소련 등의 輸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73年과 1974年 사이에 밀을 중심으로 한 主要穀物의 輸出價格를 2~3倍로 뛰어 오르게 했고, 美國은 장기간에 걸쳐 穀物의 大量剩餘의 難題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機會에 在庫를 處分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人口增加와 所得水準의 向上에 의한 世界的인 穀物需要의 增加에 對應하여 輸出을 위한 穀物의 増產을 꾀하게 되었다.<sup>22)</sup>

表 15 世界의 當需給·貿易量推移

(生産: 精米ベイース, 貿易在庫: 玄米ベイース) (單位: 100만t%)

輸 出 <sup>1)</sup>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オースטר레일리아	0.3	0.3	0.3	0.4	0.3	0.4	0.4
ペ ル マ	0.6	0.7	0.4	0.6	0.6	0.8	0.8
イ タ リ ア	0.4	0.4	0.4	0.5	0.6	0.4	0.5
パ キ ス タ	0.9	0.8	0.8	1.4	1.0	1.1	1.1
中 國	1.0	1.0	1.4	0.9	1.0	0.6	0.6
泰 國	1.9	2.9	1.6	2.7	2.7	3.1	3.0
其 他	1.2	3.2	2.5	3.1	3.3	3.7	3.8
美國以外計	6.0	9.2	7.4	9.6	9.5	11.2	10.2
美 國	2.0	2.3	2.3	2.3	3.0	2.8	2.9
世 界 合 計	8.1	11.5	9.6	11.8	12.5	14.0	13.1

21) 日本外務省, 上掲書, pp.7~9.

22) R.F. HOPKINS & D.J. PUCHALA, GLOBAL FOOD INTERDEPENDENCE-Challenge to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p.5-6.

表 15 계속

輸入 <sup>1)</sup>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방글라데시	0.2	0.4	NIL	0.6	0.2	0.1	0.1
EC 10個國	0.9	1.0	1.0	1.0	0.9	0.9	1.3
香 港	0.3	0.3	0.3	0.3	0.4	0.4	0.4
인도네시아	1.3	2.0	1.8	2.0	2.0	0.5	0.5
이란	0.3	0.6	0.3	0.4	0.5	0.6	0.6
韓 國	0.2	0.1	NIL	0.4	0.8	2.2	2.2
西 말레이지아	0.2	0.2	0.4	0.2	0.1	0.2	0.2
사우디아라비아	NA.	NA.	NA.	NA.	0.5	0.5	0.5
싱가포르	0.2	0.2	0.1	0.2	0.2	0.2	0.2
스리랑카	0.4	0.5	0.2	0.2	0.2	0.2	0.2
其 他	4.1	5.9	4.9	6.1	6.7	7.3	6.9
世界合計	8.1	11.5	9.6	11.8	12.5	13.0	13.1

生産 <sup>1)</sup>	1974/75	1975/76	1976/77	1977/78	1978/79	1979/80	1980/81
방글라데시	17.1	18.8	17.6	19.5	19.3	19.1	21.5
버마	8.6	9.2	9.3	9.5	9.5	9.8	12.5
인도	59.4	74.3	62.9	79.1	80.8	63.3	79.9
인도네시아	22.5	22.6	23.3	23.3	25.8	24.7	29.8
日本	15.4	16.5	14.7	16.4	15.7	14.9	12.2
韓國	6.2	6.5	7.2	8.3	7.4	7.9	6.5
파키스탄	3.5	3.9	4.1	4.4	4.9	4.8	4.6
中國	120.0	119.0	127.5	129.0	137.0	143.7	139.3
泰國	14.5	15.2	15.8	15.0	17.5	15.7	18.5
小計	267.0	285.9	282.7	315.8	317.9	303.9	324.8
EC 10個國	1.0	1.0	0.9	0.7	1.0	1.1	1.0
오스트레일리아	0.4	0.4	0.5	0.5	0.7	0.4	0.8
아르헨티나	0.4	0.3	0.3	0.3	0.3	0.3	0.3
브라질	7.0	8.5	8.0	7.5	7.6	9.6	9.1
其 他	49.0	50.4	64.1	52.8	50.7	53.6	53.5
美國以外計	324.9	346.6	356.4	366.3	378.2	369.3	389.5
美國	5.1	5.8	5.2	4.5	6.0	6.0	6.6
世界合計	330.0	352.4	361.7	370.8	384.2	375.3	396.1

資料：美國農務省

1) 輸出·入量은 暫年베이스, 生產은 收穫年度베이스.

出處：表 12 와 같음.

Table 16 Average Wheat Export Prices, 1968-78  
Dollars/bushel(60lbs):averaged for grades and varieties

Year	United States	Canada <sup>a</sup>	Australia <sup>b</sup>
1968	1.69	1.96	1.42
1969	1.67	1.89	1.38
1970	1.74	1.71	1.33
1971	1.69	1.70	1.40
1972	1.86	1.89	1.54
1973	3.55	4.37	2.77
1974	5.16	6.22	3.72
1975	4.79	5.52	3.11 <sup>c</sup>
1976	3.64	4.01	2.96
1977 <sup>d</sup>	2.86	3.35	-
1978	3.53	4.14	-

SOURCES: United Nation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December 1976), 30(12): 165, for 1968-75; and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1977, p.83, and January 1979, pp.64-65.

a. Canadian dollars.

b. Australian dollars.

c. Figure is for June 1976.

d. Figures for 1977 and 1978 are for U.S. number 2 hard winter and Canadian number 1.

出處 : R.F. HOPKINS & D.J. PUCHALA, GLOBAL FOOD INTERDEPENDENCE-Challenge to American Foreign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5.

그리하여, 美國은, 1980年에 397億달러의 農產物을 輸出하고 180億달러의 輸入을 하게 되므로써, 217億달러의 外貨를 獲得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貿易收支赤字 330億달러의 66%에 달하고 있어, 農產物輸出이 美國의 貿易收支에 얼마나 貢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美國의 農業은 重要한 輸出產業으로써 그 役割을 다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가 그生存, 生活向上을 위해서는 美國의 穀物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外貨獲得源으로써 穀物을 중심으로 하는 農產物 輸出의 發展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農業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sup>23)</sup>

23) 日本外務省, 上掲書, p.12.

Table 17 World Food Reserves, 1960/61 to 1977/78

	Reserve Stocks of Grain <sup>1</sup>	Grain Equivalent of Idled U.S. Cropland	Total World Reserves	Reserves as Days of Annual Grain Consumption
(million metric tons)				
1960/61	168	68	236	103
1961/62	180	81	261	112
1962/63	154	70	224	93
1963/64	157	70	227	94
1964/65	152	71	223	88
1965/66	155	78	233	88
1966/67	130	51	181	68
1967/68	157	61	218	79
1968/69	175	73	248	87
1969/70	208	71	279	93
1970/71	193	41	234	76
1971/72	155	78	233	73
1972/73	172	24	196	60
<hr/>				
1973/74	127	0	127	37
1974/75	132	0	132	40
1975/76	123	0	123	37
1976/77	126	0	126	36
1977/78 <sup>2</sup>	151	0	151	43

SOURCE: Worldwatch Institute. Washington, D.C.: Compiled from data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Reported in Martin McLaughlin, *The United States and World Development Agenda 1979* (New York: Praeger, 1979), p.189.

<sup>1</sup>Based on carry-over stocks of grain at the beginning of the crop year in individual countries for year shown. Stock levels include reserve stocks of importing as well as of exporting countries.

<sup>2</sup>Preliminary estimate.

出處: R.F. HOPKINS & D.J. PUCHALA, GLOBAL FOOD INTERDEPENDENCE-Challenge to American Foreign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6.

앞으로의 世界穀物需要는, 人口增加<sup>24)</sup>와 輸入國, 특히 中進國以下의 輸入國의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또, 社會主義國家의 需要增加에 따라 持續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增加하는 需要를 채워주기 위한, 供給增加를 담당할 國家들은 美國을 비롯하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EC諸國, 泰國 등이 있지만, 自然的, 社會的, 經濟的條件으로 보아 70年代와 마찬가지로 美國이 主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美國은, 食糧을 外貨獲得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石油資源과 같이 중요한 戰略物資로써 政治的인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外交政策의 수단으로 널리 活用될 것이 異想되므로, 美國의 食糧政策은 世界의 穀物需給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 우리나라의 食糧資源의 貿易現況

食糧資源의 貿易은, SITC分類에 따라 全體食糧資源인 農產物의 輸出入과 SITC 0類의 主穀 및 2類의 大豆를 對象으로 하는 穀物의 輸出入을 말한다.

여기서의 農產物이란, SITC 0類(食料品 및 산동물) 1類(음료 및 연초), 2類(非食用原料(天然肥料 및 粗礦物과 金屬礦 및 金屬屑은 除外), 4類(動・植物性油脂) 등을 意味하고, 穀物이라함은, 0類中 穀(042), 보리(0430), 밀(0410), 옥수수(0440), 밀가루(0460) 및 2類中 大豆(2214.000) 등을 意味한다.

우리나라가 工業化를 目標로 經濟開發計劃을 시작한 1962年頃의 農產物의 貿易은, 輸出이 全體輸出의 75.5% 수입이 33.7%를 차지하고 있어, 輸出의 構成比가 輸入의 構成比 보다 높았지만, 經濟發展에 따라 1967年부터는 工產品의 輸入代替가 어느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공산품의 수출이 增加하기 시작한 結果, 1970年에는 農產物의 輸出構成比가 21.5%, 輸入構成比가 37.3%로 農산물의 輸出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表18에서,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農產物 및 穀物의 構成比를 보면, 1962年에는 각각 75.5%, 16.3%였는데, 1970年에는 21.5%, 0.16%로 크게降低했다. 특히 穀物의 構成比가 急激히 低下한 것은 1967年 이후부터 主要輸出穀物이었던 穀을 輸出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1年에는 그 構成比가 輝先 낮아져서 각각 8.2%, 0.02%를 나타내고 있다. 絶對額에 있어서는 農產物은 減增하고 있지만, 穀物은 1977年以後 繼續하여 低下하고 있다.

다음으로, 表19로부터 農產物 및 穀物의 輸入構成比를 보면, 1962年에는 農產物의 輸入構成比가 33.7%, 穀物이 8.8%였고, 1970年에는 각각 37.3%, 11.7%로 크게 上昇했지만 이는 PL480에 의한 穀物導入額 6,170만 달러가 總輸入額의 3.1%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1年에는 각각 25.1%, 8.0%로, 1975年以後의 農產物構成比는 같은 水準이지만, 穀物

24) 1975年부터 2000年까지의 人口는 1.8%로 增加하게 되어있어, 絶對數에 있어서는 1975年 推計의 40億9,000萬人으로부터 2000年에는 63億5,100萬人으로 불어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表 18 食糧資源의 輸出構成比推移 (1962-81)

(單位: 1,000 달러)

年 度	總 輸 出 (1)	農產物輸出 (2)	穀 物 輸 出 (3)	(2) / (1) (4)	(3) / (1) (5)
1962	54,813	41,429	8,925	75.5 %	16.3 %
66	250,334	101,824	6,841	40.6	2.7
70	835,185	179,800	1,318	21.5	0.16
75	5,081,016	821,334	4,442	16.1	0.08
77	10,046,457	1,357,750	21,168	13.5	0.21
79	15,055,453	1,587,622	8,087	10.5	0.05
80	17,504,862	1,622,298	7,218	9.2	0.04
81	21,253,757	1,740,509	6,221	8.2	0.02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各年版。

注：穀物輸出은 1962, 1966年은 쌀 만이고, 1967年부터는 쌀의 輸出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리 및 옥수수, 밀가루 등을 包含하고 있음。

表 19 食糧資源의 輸入構成比推移 (1962-81)

(單位: 1,000 달러)

年 度	總 輸 入 (1)	農產物輸入 (2)	穀 物 輸 入 (3)	(2) / (1) (4)	(3) / (1) (5)
1962	421,782	142,279	36,999	33.7 %	8.8%
66	716,441	232,046	56,256	32.3	7.8
70	1,983,973	740,775	231,805	37.3	11.7
75	7,274,434	2,130,335	613,697	29.2	8.4
77	10,810,538	2,776,446	525,930	25.6	4.8
79	20,338,611	4,914,782	872,160	24.1	4.2
80	22,291,663	5,626,214	1,240,955	25.2	5.5
81	26,131,421	6,554,826	2,096,816	25.1	8.0

資料：表 18 과 같음。

注：穀物輸入은 쌀, 보리, 밀, 옥수수, 대두, 밀가루를 包含하고 있음。

의構成比는 1980年까지 같은水準을 유지하여 왔었으나, 1981年에는 8.0%로 상승하여 1980年의 5.5%보다 2.5%포인트나 높아졌다. 谷物輸入이 1981年에 크게增加한 것은 1981年의 穀의 減產에 의한 不足分을 메우기 위한 輸入量이 1980年度에 비하여 2.9倍나增加한結果 谷物輸入額이 21億달러로 늘어난데 起因하고 있다.

1962年부터 1966年까지의 PL480에 의한 無償援助額이 3億 2,257만달러로, 이것은 같은期間의 谷物輸入額 3億 2,763만달러의 98.5%, 農水產物輸入額 9億 5,390만달러의 33.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食糧輸入問題가 國際收支의 壓迫要因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1967年以後부터는 PL480에 의한 谷物導入을 위한 援助額이 점차로 줄어들어 1971年에는 援助가 그치게 되지만, 農產物輸入은 持續的으로增加하여 總輸入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谷物輸入도 年平均 8.1%에 달하고 있다.

1962年的 谷物輸入額이 3,699만달러였던 것이 1970年에는 2億 3千萬달러, 1980年에는 12億 4千萬달러, 1981年에는 21億달러로增加하여 國際收支를 惡化시켜 工業化推進에 커다란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農產物貿易에 있어서, 輸出이 急速히 減少한 것은 工業化過程에서一般的으로 알려지고 있는農業部門의 比較優位低下現象에 의한 것이며, 輸入이 急激히 늘어난 것은 農業部門의 比較優位가 낮아짐에 따라 農產物生產이 國內需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輸出用原材料로써 輸入이增加하고 있으며, 生活水準向上에 의하여 飼料谷物의 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들 수 있겠다.

즉, 農產物의 比較優位性이 낮아져서 輸出이 減少한 것은, 對外的으로는 農產物에 대한 需要彈力性이 공산품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對內的으로는 輸出을 急速히 伸張시키려고 하는 政策的關心이 60年代中半以後부터는 공산품에集中되었기 때문이다.<sup>26)</sup>

또, 輸入이 크게增加한 것은, PL480에 의한 美國의 剩餘農產物導入이 國民食糧의 安定的供給과 全般的인 經濟安定에 크게 貢獻하였지만, 무상원조양곡의 大量導入을 背景으로 한 低穀價政策이 農民들의 增產意慾에 逆效果를 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1960年代後半의 政策的關心이 공산품에集中되었던 것과 低穀價政策이 實施되었던 것은, 工業化를指向하는 과정에서 低賃金維持와 物價安定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低

25) 1962-71年까지의 PL480에 의한 谷物導入額은 5億 9,306만달러이지만, 이중에서一部는 미국側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 원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있어서는 不足한 谷物을 PL480에 의한 韓貨支払로 充足시켰기 때문에, 食糧不足 그 自體가 國제수지의 壓迫要因이 되지 않았다.

2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韓國農業의近代化過程』, 1980, p.262.

27) 文八竜, “二重穀價制度와 糧穀管理制度의 転換方向”, 『農家所得構造改編研究資料集, (上)』, 韓國開發研究院, 1982, pp.11~12.

穀價政策의 實施가 工業部門의 低貨金政策의 實施를 可能하게 했고, 輸出產業成長의 커다란 促進要因이 되었다.

이와같은 輸出急減과 輸入急增의 結果, 食糧資源의 入超現象이 加速化되어 全體貿易收支赤字深化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했다.

農產物의 貿易收支를 살펴보면, 1962年的 貿易赤字는 3億 6,697만 달러이고, 農產物의 赤字는 1億 85萬 달러, 穀物의 赤字는 2,407만 달러로, 貿易收支에 대한 構成比는 각각 27.5%, 6.6%였었으나, 1970年에는 그 構成比가 48.8%, 20.1%로 上昇했으며, 1981年에는 貿易收支赤字 48億 7,766만 달러에 대한 構成費가 98.7%, 42.9%에 이르게 되어 심각한 狀態라 아니할 수 없다.

貿易收支가 均衡에 接近하였던 1977年에는, 그 構成比가 185.7%, 66.1%에 달하게 되어 低貨金의 기반위에서 生産된 勞動集約的인 工產品을 아무리 輸出하드라도 食糧輸入을 위한 赤字를 備울수가 없는 狀態이다.

앞으로도 이런 狀態가 繼續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食糧資源의 輸入增加에 의한 貿易收支赤字 내지는 國際收支赤字現象이 더욱 더 深化되어 重化學工業化的 持續的인 推進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表 20 農產物의 貿易收支 (1962-81)

(單位: 천달러)

年 度	貿易收支 (1)	農產物貿易收支 (2)	穀物貿易收支 (3)	(2) / (1) (4)	(3) / (1) (5)
1962	-366,969	-100,850	-24,070	27.5 %	6.6 %
66	-466,107	-130,222	-49,415	27.9	10.6
70	-1,148,788	-560,975	-230,487	48.8	20.1
75	-2,193,418	-1,309,001	-609,255	59.7	27.8
77	-764,081	-1,418,696	-504,762	185.7	66.1
79	-5,283,158	-3,327,160	-864,073	63.0	16.4
80	-4,786,801	-4,003,916	-1,233,737	83.6	25.8
81	-4,877,664	-4,814,317	-2,090,595	98.7	42.9

資料: 表 18 과 表 19.

### 3. 主要食糧資源의 輸出入構造

農產物類別 輸出入推移를 表 21과 22로 부터 보면, 全體農產物輸出은, 1962年的 4千萬 달러

에서 1981年的 17億4千萬달러로 42倍增加했고, 全體農產物輸入은, 같은期間에 1億4千萬달러에서 65億5千萬달러로 46倍의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絶對額에 있어서는 輸入이 輸出의 3~4倍에 이르고 있다.

農產物輸出에 대한 類別構成比는, 食料品 및 산동물이 1962年的 52.7%에서 75年에 73.3%, 1981年에는 76.0%로 크게 上昇했고, 飲料 및 煙草는 0.3%에서 8.2%로 75年까지는 急速히 成長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로 낮아져서 6.9%를 나타내고 있으며, 非食用原料는 46.8%, 18.3%, 16.3%로 急速히 減少하고 있고, 動·植物性油脂는 전기간을 통하여 1% 미만의 낮은 水準이었다.

農產物輸入에 대한 類別構成比는, 食料品 및 산동물이 1962年的 34.2%에서 75年的 44.4%, 81年的 41.5%로, 75年까지는 크게 上昇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減減하였으며, 飲料 및 煙草는 0.1%, 0.6%, 1.0%로 계속 增加하고 있고, 非食用原料는 63.0%에서 52.5%, 55.5%로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動·植物性油脂는 2.7%, 2.5%, 2.1%로 減減趨勢에 있다.

表 21 農產物類別輸出推移 (1962-81)

(單位: 1,000 달러)

類別 年 度 SITC	全體農產物 (0+1+2+4)	食料品 및 산동물 0	飲料 및 煙草 1	非食用原料 2	動物性 및 植物性油脂 4
1962	41,429	21,847	141	19,372	69
66	101,824	41,274	6,892	46,680	137
70	179,800	65,537	14,231	99,973	59
75	821,334	602,339	67,565	150,494	936
77	1,357,750	945,001	108,390	299,885	4,474
79	1,587,622	1,082,053	118,016	360,835	26,718
80	1,622,298	1,152,704	124,165	332,602	12,827
81	1,740,509	1,322,496	119,266	283,905	14,842

資料: 表 18 과 같음.

이상에서 農產物類別 輸出入構造를 보았는데, 주된 輸出物은 食料品 및 산동물이고, 輸入物은 非食用原料와 食料品 및 산동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23은 지난 20年間의 主要穀物의 輸入量 및 輸入額을 나타낸 것이다.

表 22 農產物類別 輸入推移 (1962-81)

(單位: 1,000 달러)

類別 SITC 年 度	全體農產物 (0+1+2+4)	食料品 및 산동물 0	食料 및 煙草 1	非食用原料 2	動物性 및 植物性油脂 4
1962	142,279	48,647	86	89,690	3,856
66	232,046	72,365	266	153,924	5,491
70	740,775	319,362	1,637	404,526	15,250
75	2,130,335	946,559	12,847	1,118,087	52,842
77	2,776,446	715,236	34,174	1,941,369	85,667
79	4,914,782	1,431,940	70,723	3,260,343	151,776
80	5,626,214	1,788,462	84,867	3,634,396	118,489
81	6,554,826	2,720,481	67,485	3,630,145	136,715

資料: 表 18 과 같음.

쌀은 1962年을 除外하고는 매년 輸入하게 되어, 1971年에는, 大部分이 PL480에 의한 導入分이였지만, 100만噸을 넘게 되었고, 1981年에는 250만噸을 넘어 輸入代金으로써 10億달러 이상을지불하고 있다.

보리는 1979年까지는 輸入했지만, 1980年부터는 國內의 生產增大와 消費需要減退에 의하여 輸入할 必要가 없어졌으며, 밀은 國民의 食生活水準이 向上되기 시작한 1971年부터 크게 增加한 후에는 비슷한 量이 輸入되고 있고, 옥수수는 PL480에 의하여 1968年까지는 導入되었지만, 그후 1975年까지는 輸入되지 않았으나 1976年부터는 肉類需要의 增大에 의하여 많은 量이 飼料用으로써 輸入되게 되었으며, 대두도 食生活을 반영하여 1976年부터 輸入量이 크게 늘어났다.

表 24는 主要穀物의 輸入額構成比推移를 나타낸 것인데, 1962-81年間의 全體穀物의 年平均輸入額은 4億3,868만달러이고, 쌀이 1億2,925만달러, 보리가 1,936만달러, 밀이 1億7,149만달러, 옥수수가 8,455만달러, 대두가 3,442만달러로, 全體穀物에 대한 각각의 年平均輸入構成比는 29.5%, 4.4%, 39.1%, 19.3%, 17.8%를 나타내고 있다.

쌀의 構成比가 높았던 해는 1967-71年과 1981年으로, 이 期間에는 50%이상이었다. 보리는 1962-65年, 1973-75年의 二時點이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밀은 쌀의 構成比가 높았던 해를 除外한 全期間이 거의 50%이상의 높은 水準이었으며, 옥수수와 대두는 1976年 이후부터 그 構成比가 크게 上昇했다.

表 23 主要穀物의 輸入量 及 輸入額推移 (1962-81)

〈單位：數量： $\text{t}$   
金額：1,000 달러〉

品目 (SITC) 年度	쌀 (042)		보리 (0430)		밀 (0410)		옥수수 (0440)		大豆 (2214.000)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1962	-	-	91,841	6,548	370,812	26,053	22,655	1,593	239	32
63	117,187	17,525	207,457	13,802	897,961	66,475	16,301	1,128	60	7
64	23	3	194,382	14,509	374,871	36,810	10,725	542	8,167	1,055
65	20	4	105,755	5,759	476,245	35,890	700	46	193	49
66	18,034	3,088	7,231	657	425,828	40,482	2,937	264	150	12
67	138,977	24,902	2,966	291	635,718	46,294	11,106	870	25,760	3,231
68	246,803	43,305	154,610	11,806	813,465	62,788	9,655	753	4,014	514
69	631,261	120,465	107,105	7,534	1,342,906	90,345	-	-	17,660	3,880
70	765,604	145,367	10,892	956	1,178,066	79,528	-	-	29,590	3,455
71	1,007,448	150,164	60,707	4,150	1,654,090	115,101	-	-	61,780	8,944
72	623,580	102,965	330,502	22,115	1,822,336	128,136	-	-	37,264	5,124
73	336,808	83,965	500,108	54,160	1,806,893	255,380	-	-	71,484	16,289
74	364,662	153,112	492,244	84,499	1,312,754	297,562	-	-	49,503	14,770
75	482,604	195,118	536,047	106,576	1,518,777	293,651	-	-	56,608	14,137
76	179,573	46,954	4,100	844	1,787,016	276,030	943,591	124,155	147,854	38,581
77	64,889	14,205	324,834	39,686	1,989,741	273,227	1,278,042	151,613	6,148	43,019
78	1,864	610	103,388	12,894	1,638,275	236,353	1,877,871	230,752	238,601	64,866
79	241,403	69,367	2,976	420	1,695,348	299,077	2,728,450	364,594	428,022	135,451
80	906,838	328,428	-	-	1,868,199	366,617	2,351,344	376,218	543,340	167,723
81	2,587,561	1,085,487	-	-	1,956,567	405,091	3,050,531	438,492	494,351	167,273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各年版。

## 韓國의 食糧資源의 輸出入現況 및 展望

29

表 24 主要穀物의 輸入額構成比推移 (1962-81)

(單位: 1,000 달러)

品目 (SITC) 年度	全體穀物 輸入額	麥 (042)		粟 (0430)		米 (0410)		穀子 (0440)		大豆(2214.000)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1962	34,226	-	-	6,548	19.1	26,053	76.1	1,593	4.6	32	*
63	98,937	17,525	17.7	13,802	13.9	66,475	67.1	1,128	1.1	7	*
64	52,919	3	*	14,509	27.4	36,810	69.5	542	1.0	1,055	1.9
65	41,748	4	*	5,769	13.7	35,890	85.9	46	*	49	*
66	44,504	3,088	6.9	657	1.4	40,482	90.9	264	0.5	12	*
67	75,588	24,902	32.9	291	*	46,294	61.2	870	1.1	3,231	4.2
68	119,166	43,305	36.3	11,806	9.9	62,788	52.7	753	0.6	514	*
69	222,224	120,465	54.2	7,534	3.3	90,345	40.6	-	-	3,880	1.7
70	229,306	145,367	63.3	956	*	79,528	34.6	-	-	3,455	1.5
71	278,359	150,164	53.9	4,150	1.4	115,101	41.3	-	-	8,944	3.2
72	258,340	102,965	39.8	22,115	8.5	128,136	49.5	-	-	5,124	1.9
73	409,794	83,965	20.4	54,160	13.2	255,380	62.3	-	-	16,289	3.9
74	549,310	153,112	27.8	84,499	15.3	297,562	54.1	-	-	14,770	2.6
75	610,115	195,118	31.9	106,576	17.4	293,651	48.1	-	-	14,137	2.3
76	486,564	46,954	9.6	844	*	276,030	56.7	124,155	25.5	38,581	7.9
77	521,750	14,205	2.7	39,686	7.6	273,227	52.3	151,613	29.0	43,019	8.2
78	544,484	610	*	12,894	2.3	235,353	43.2	230,752	42.3	64,866	11.9
79	868,909	69,367	7.9	420	*	299,077	34.4	364,594	41.9	135,451	15.5
80	1,230,955	328,428	26.6	-	-	366,617	29.7	376,218	30.5	167,723	13.6
81	2,096,343	1,085,487	51.7	-	-	405,091	19.3	438,492	20.9	167,273	7.9
年平均	438,677	129,252	29.5	19,360	4.4	171,495	39.1	84,551	19.3	34,421	7.8

資料：表 23 과 같음。

注：\*는 그 構成比가 0.5 % 未滿임。

## V. 要約 및 結論

本稿에서는, 1962年부터 1981年까지의 우리나라의 農業部門의 成長, 食糧資源의 需給現況, 消費構造 및 需給上의 問題點, 食糧資源의 貿易現況 및 輸出入構造, 世界의 食糧貿易事情 등을 考察했다.

우리나라의 農業部門은, 지금도 單一產業으로써 주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農村의 人口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데 비해 農業生產이 急激히 低下한 結果, 農業部門의 生產性이 낮아져서 食糧自給率이 크게 下落했다.

1962年 以後의 一連의 經濟開發計劃이 製造工業의 育成에 의한 工業化指向型이였기 때문에 農業部門이 沈滯하게 된 結果, 食糧의 生產供給, 製造業部門의 原材料供給,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創出 등의 세 가지 基礎的機能을 충분히 移行할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不足現象의 發生, 製造部門에 대한 原材料의 海外依存度上昇, 國內市場의 相對的인 委縮 등을 가져와서 工業部門의 成長을 鈍化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持續的인 安定成長과 自立經濟達成을 위해서는, 農業部門의 高成長에 의한 寄與率의 提高와 生產擴大가 要求되어지고 있다.

1962-81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은 8.4%였지만, 農業部門의 成長率이 3.7%, 非農業部門의 成長率이 12.2%로, 農業部門의 成長率이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이였다. 農業部門의 低成長은, 工業化的 過程에서 世界共通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PL480에 의한 美國의 剩餘農產物의 導入에 의한 低穀價政策이 實施되었기 때문에 農民들의 增產意慾이 낮아진데 起因하고 있다고 하겠다.

食糧의 需給에 있어서는, 主要穀物의 生產이 1962-81年間에 約 6% 줄어들었는데, 需要는 約 2.1倍의 增加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不足分을 衡當하기 위하여 導入量이 15.8倍나 增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飼料用의 옥수수 輸入이 같은 期間에 65倍나 增加한 것이 注目되어진다.

主要食品의 消費構造는, 1人當 年間 穀物消費量이 1962年的 175kg에서 70年 219kg으로 크게 增加했지만, 그 이후에는 所得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는 反面, 所得彈性值가 比較的 큰 農畜產物과 水產物의 消費量이 현저히 增加하여 食生活이 크게 變化하고 있다. 또, 1970年 이후의 쌀의 消費比重이 높아가고 있는데, 國內生產餘力이 充分히 있는 보리의 比重이 急速히 감소하고 있어 쌀의 消費偏重現象이 계속되고 있는 點과 거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밀의 消費量이 크게 增加하고 있는 點이 食糧自給度提高의 面에서 큰 問題가 되고 있다.

經濟成長에 따라 所得水準이 向上되었기 때문에, 食糧消費樣式이 高級化 内지 多樣化되어, 肉類需要를 增大시켜, 이것이 飼料穀物의 輸入을 加速化시켜서 海外依存度를 높이고 있다. 海外依存度가 높게 되면, 食糧輸入을 위하여 莫大한 外貨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國際收支가 惡化되어 重化學工業化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食糧自給率은, 人口增加와 食生活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全體穀物의 自給率이 1965年에 94 %였던것이 1981年에는 43 %까지 低下하고 있다. 특히 밀, 䅟子 등의 自給率은 1981年에 각각 2.7 %, 6.1 %로 食糧自給에 심각한 影響을 미치고 있고, 國民의 營養狀態에 있어서는, 全體熱量供給量과 總蛋白質供給量은 適正水準에 달하고 있지만, 蛋白質中에서 動物性 蛋白質의 供給增大와 脂肪質의 供給을 增大할 必要가 있다.

世界食糧貿易事情은, 美國의 全體穀物輸出量이 全世界輸出量의 55.9 %를 차지하고 있어 世界穀物市場에서 壓倒的인 位置에 君臨하고 있으며, 穀物輸入國은 소련, 中國, 日本 등 아시아를 中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地域에서의 穀物需給狀態가 世界穀物需給市場에 크게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世界가 그 生存, 生活向上을 위하여, 穀物需要는 持續的으로 增大될 것인데, 이 需要增大에 對應하여 供給增加를 담당할 나라는 自然的, 社會的, 經濟的條件으로 보아 美國이 主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美國은, 食糧을 外貨獲得의 手段으로써 뿐만 아니라, 重要한 戰略資源으로써 外交政策의 手段으로 널리 活用될 것이므로, 美國의 食糧政策이 世界穀物貿易을 크게 左右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農產物貿易에 있어서는,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農產物輸出의 比重이 1962年的 75.5 %에서 1981年에 8.2 %로, 穀物이 16.3 %에서 0.02 %로 현저히 低下하고 있으며, 輸入의 比重은 農產物이 같은 期間에 33.7 %에서 25.1 %로, 穀物이 8.8 %에서 8.0 %로 低下하고 있지만, 그 低下幅이 적기 때문에, 絶對額에 있어서는 輸出보다 輸入이 相對的으로 增加하여 貿易收支赤字現象은 점차 深化되고 있다.

主要穀物의 輸出入構造는, 主된 輸出物은 食料品이지만, 輸入物은 食料品과 非食用原料가 中心이 되어 있으며, 穀物의 輸入構成比는, 1962-81年間의 年平均으로 밀이 39.1 %, 糜이 29.5 %, 䅟子수가 19.3 %의 順으로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의 食糧資源의 問題點으로서는, 低穀價政策과 工業化指向型政策을 實施했기 때문에, 農業部門의 生產性이 低下하여 食糧自給率이 急落하고 있고, 食糧需要의 增大가 食糧資源의 海外依存度를 높여 國際收支가 壓迫을 받고 있으며, 食糧消費構造가 糜과 쇠고기에 크게 偏重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問題點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農民의 實質所得을 保障하는 適正穀價政策을 통

하여 食糧增產을 畏함과 同時に 粮의 消費減少와 增產餘力이 있는 보리의 消費增大量 誘導하므로써 自給率을 높여 갈 必要가 있다. 自給率의 提高는, 製造業部門의 原材料의 供給을 늘리는 일이 可能하게 되고, 粮의 消費減少는 粮輸入에 必要로 하는 外貨를 절약하여 國際收支를 改善하게 된다.

食糧의 消費構造를 均衡시키기 위해서는, 國內의 增產이 可能한 보리와 豚肉 및 鶏肉 등의 消費를 늘리는 한편, 肉類消費를 水產物로 代替할 必要가 있다. 水產物의 消費增加는, 良質의 蛋白質의 供給을 增大시킴과 同時に 飼料用穀物의 輸入을 감소시켜 食糧自給率提高와 外貨節約效果를 함께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